

4주차 - DAY 1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3 [47~50]

기존의 분자 생물학은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개별적인 기능을 알아내는 ㉠환원주의적 방식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유기체는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접근만으로 생명 현상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다.

시스템 생물학은 최근 들어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 대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스템 생물학자들은 축적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생명 현상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들 간에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포괄하는 시스템 내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생명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명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상 심장을 최초로 개발한 데니스 노블은 이러한 방법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현상 속에 작동하는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를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심장의 박동은 세포 내의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 그것이 심장의 근육 세포에 전압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발생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노블은 심장 박동이 이러한 단일의 인과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채널이라는 구성 요소와 그것의 상부 구조라 할 수 있는 근육 세포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살아 있는 심장을 컴퓨터로 모델화한 후,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둔 채 피드백 효과와 관련된 것만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의 전압 변화와 단백질 채널인 칼륨 채널, 칼슘 채널, 그리고 혼합 이온 채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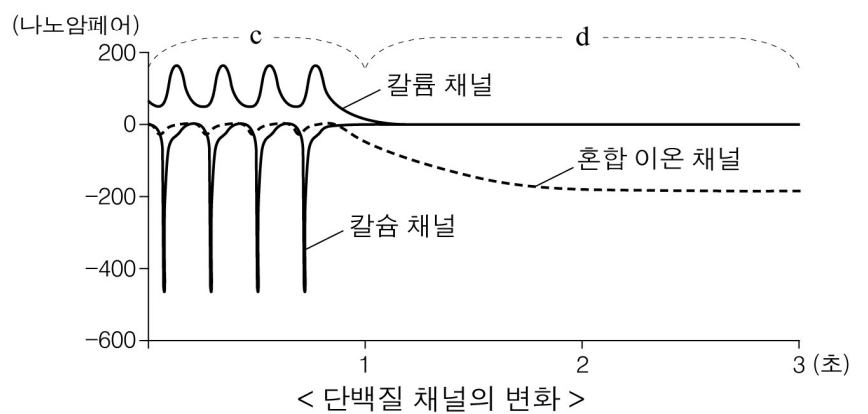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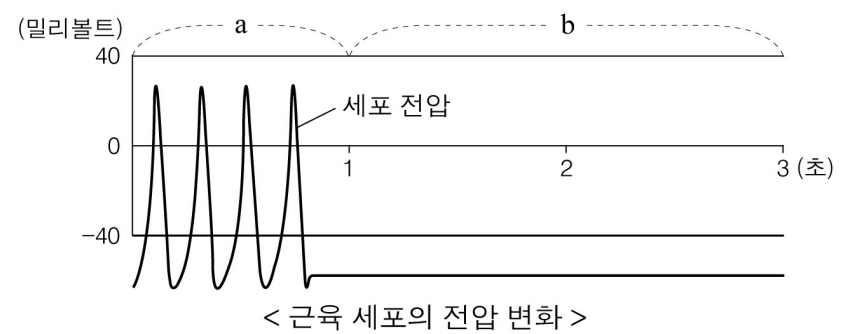
먼저 처음 1초 동안에는 세포 전압의 진동과 이에 대응되는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네 차례 있었다. 네 차례의 진동 후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다.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험해 본 결과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멈추었고, 각 경우의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선(線)들이 편평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 심장의 박동이 설명될 수 없으며, 심장의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심장의 박동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생명 현상이 유전자나 단백질에서부터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로 향하는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와 반대되는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도 생명 현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노블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환원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 내의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시스템 생물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
- ② 기존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방식
- ③ 시스템 생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
- ④ 심장 박동 현상에 대한 노블의 실험 과정
- ⑤ 생명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노블의 주장

2. 다음은 위에 소개된 실험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진동이 b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실험자의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이다.
- ② a와 c의 진동이 네 차례 지속되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c의 진동이 d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 ④ 칼륨 채널의 진동이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b와 d의 편평해진 선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 ⑤ b와 d의 편평해진 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채널의 영향에 의해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

3. ㉠ ~ ㉦ 중, ㉦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보기>에 대해 ‘노블’이 평가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오늘날 유전자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로봇’ 속에 안전하게 거대한 집단으로 떼를 지어 살면서, ‘원격 조정기’를 통해 그것을 조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있다. 그것들의 유지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유기체인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 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② 유전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유기체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한계가 보인다.
- ③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에서 유전자와 유기체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유전자와 유기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유기체의 생명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03 [30~32]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과거를 떠올린다. ‘나’는 고향에서의 비참한 삶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산동네 자취방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쓰던 ‘안’을 만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결국 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인쇄소의 낡은 문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열쇠를 꽂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긴 주말 끝의 월요일. 나는 해가 기울어지기도 전에 방문을 나섰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인쇄소에 얼굴을 들이밀 처지가 못 되었던 만큼 인쇄소까지의 긴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한 장의 버스표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낮에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피하라는 안과 정의 원칙은 철저한 것이었고,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 뒷문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당연히 셔터가 내려져 있어야 할 인쇄소의 입구가 먼발치에서 눈에 띄자마자 나는 단번에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올려진 셔터, 환하게 켜진 불빛,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듯도 했다.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문밖에는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절대 황망히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뛰지 말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길을 가로질러라. 제발 인쇄소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행인들 사이에 섞여 건널목 앞에 섰다.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미 날은 어두워져 실제로 먼발치에 있는 그들이 나의 모습을 알아보거나 뒤쫓을 위험이 없었음에도 그 짧은 **기다림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밑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당장이라도 옆의 행인이 나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강하원이지. 순순히 나를 따라와.” 하고 귓속에서 속삭일 것 같았다.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행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은 유혹은 견뎌 내기 힘든 것이었다.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너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은 한 이름만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는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기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헌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를 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나의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에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나는 깨어 일어났다. 나는 둔화된 기억의 축수를 다시 갈아세우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신자 없는 고독한 전파였다. 나는 책상에 공책을 펴고 앉았다. 나의 모든 기억을 동원하여, 내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교정을 본 바 있는,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생각나는 대로 각 원고의 내용을 거칠게 요점만이라도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망각의 신비만큼 가끔 기억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가끔 한 문단 전체가 고

스란히 기억에 되살아오는 것에 나 스스로 경악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나는 머리맡까지 합쳐 모두 세 편의 논문을 그런대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두 열여덟 편의 논문이 있었고 그 중의 두 편은 번역이었다. 그 중의 한 편은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이어서 나는 보따리 속에 뭉텅이로 갇혀 있던 종이 뭉치에서 복사한 원문을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하루 꼬박 걸려 그 논문의 번역도 끝을 맺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나는 감히 눈을 붙일 생각도 못 하고 미친 듯이 그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였다.

- 최윤, 「회색 눈사람」 -

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다.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나’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나’의 결핍은 ‘안’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안’은 ‘나’가 결핍의 상황에서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이다. 그렇기에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 ① ‘문의 유리의 하반부가 깨어진 것’은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②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진 ‘적색 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③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던 ‘나’의 모습은 ‘나’가 욕망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인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나’가 ‘안’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에 수록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매달린 것은 ‘나’가 ‘안’의 욕망을 모방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② ㉡ :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④ ㉣ : ‘나’가 ‘안’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나’로 하여금 ‘그들’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이다.

4주차 - DAY 2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4 [34~37]

실제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콜라주* 기법이나 설치 미술 또는 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말한다. 이는 198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 하나의 사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품을 만든 작가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다. 그의 작품 ㉠<페어블라شم 고속도로>는 많은 사진들로 구성된 콜라주 작품이지만 그 구성이 자연스러워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 어떤 장면을 한 시점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



어나가면서 고속도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상자들의 시선은 전체의 모습을 보다가도 다시 각각의 사진을 들여다보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진들은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크기나 방향마저 제각각인데다가 중첩되어 있어 시선의 이동을 불편하게 한다. 호크니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혼란이었다.

카메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안된 원근법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언제나 원근법 체계로 구성된 세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서만 대상을 한 시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호크니는 대상을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진'으로 분해하여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의 평면인 사진으로 3차원의 공간감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또한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를 주도한 작가 중 한 명은 샌디스코 글렌드이다. 그녀의 작품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콘티*를 ㉡짜고 무대를 설치한 후, 무대에 배치될 소품들과 형상들을 조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에 색을 칠하고 다시 정교하게 배치한 다음, 사람을 무대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일종의 가상적 무대를 설정하고, 물질문명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 환경 파괴에 의해 닥쳐올 공포에 대한 암시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진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콜라주 : 근대 미술에서, 화면에 종이·인쇄물·사진 따위를 오려 붙이고, 일부에 가필하여 작품을 만드는 일.

* 콘티 : 촬영이나 연출을 위해 각본을 기초로 하여 장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것.

8.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유래
- ②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개념
- ③ 메이킹 포토그래피에 사용된 기법
- ④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지니고 있는 의의
- ⑤ 메이킹 포토그래피와 기존 사진의 차이점

9. ㉠과 <보기>의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피카소의 <인형을 든 마야>이다. 이 작품에서 마야의 얼굴을 보면,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이지만 코는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겹쳐진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재구성되어 있다.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②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작품화했다.
- ③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이 주는 표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다.
- ④ ㉠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주었고, <보기>의 작품은 동일한 형태의 연속적 반복을 통해 입체감을 주었다.
- ⑤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모습이 변형되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0. <보기>의 '스티글리츠'가 ㉢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사진은 조각이나 회화 또는 회화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진 그 자체'이다. 그는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성'이 있을 때, 사진의 본질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사진의 본질은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 ② 사진의 본질은 '사진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 ③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
- ④ 사진의 본질은 인위적인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사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⑤ 사진의 본질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설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1.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동생과 짜고 나를 꿀탕 먹였다.
- ② 그는 액자를 짜고 그 안에 가족사진을 넣었다.
- ③ 할머니께서는 털실로 스웨터를 짜서 입혀 주셨다.
- ④ 같은 반 친구들끼리 조를 짜니 마음이 서로 잘 맞았다.
- ⑤ 철수는 방학을 맞아 학습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했다.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가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 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A]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추(秋)〉-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줄 가니
뒷 피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흐느니 <1수>

샷갓에 도롱이 낚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논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피혀는 새가 굶고 들히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비에 샷갓 쓴 저 ㉡늪은이
낙디에 재미가 김도다 눈 김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다)

양파(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흐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씨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흐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흐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피히 눈이 던다
모참(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흐로라 <동(冬)1>

이바 ㉣아히돌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흐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양파(陽坡): 양지쪽 언덕.

1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④ 사시가와 월령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13.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가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둠'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15.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샀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그물 김고', '산전을 훑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찌오자'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다)에서 '비존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1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4주차 - DAY 3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04 [44~47]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집단의 최초 의견이 모험적인 경우는 더 모험적인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향이었다면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결정되는 극단화되는 현상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 한다. 그렇다면 집단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비교 이론’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의 중에 자기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관람한 영화가 보통 정도는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도 ‘정말 형편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자신도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친구들보다 더 강화된 근거로 ㉢제시하여 집단으로부터 지지받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단의 의견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둘째, ‘설득주장 이론’은 집단 토의가 진행되면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접하게 되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에 구성원들이 솔깃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 의견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그럴듯한 주장이 제시되면 집단의 의견이 더 설득적이라 생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이 양극의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극화를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사회 정체성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내집단에서 생긴 의견 차이는 극소화되고, 집단의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다. 즉, 내집단 구성원 간의 의견차는 극소화되는 반면 외집단과 내집단의 차이는 극대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내집단의 의견은 다른 집단의 의견과 차별화되고 외집단과는 다른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치적 경향이 달랐던 두 정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합하지 못하고 견해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집단극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대안의 고려나 다양한 사고 없이 집단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집단 사고’라 한다. 이러한 집단 사고의 부정적 경향성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 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이나 비판이 배제된 집단, 지나치게 권위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집단,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없는 집단,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의 경우에 강화된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7.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더욱 극단화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 ③ 사회 정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합리적이다.
- ④ 집단의 의견과 일치하는 주장은 반대 의견보다 더 설득적이다.
- ⑤ 집단극화는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소음 문제 때문에 평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아파트의 부녀회가 테니스장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였다.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지역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했고 두 집단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부녀회에는 사용 시간의 변경이나 인원수 제한 등의 해결 방법을 찾자는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테니스장을 없애자는 다수의 견해로 주장이 모아졌다.

- ① 소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의견이 극단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겠군.
- ② 다른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생겼겠군.
- ③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의견에 동의하는 현상이 생겼겠군.
- ④ 테니스장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접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의견이 우세했겠군.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부녀회 내집단의 의견은 강화되나, 외집단과의 견해 차이는 더욱 커졌겠군.

19. <보기>는 [A]의 ‘집단 사고’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회의 주제 :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가〉집단				〈나〉집단			
회의 전		회의 후		회의 전		회의 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1	9	18	2	13	7	9	11

- ① 〈가〉 집단은 의사 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② 〈가〉 집단은 의견을 일치시켜 집단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③ 〈나〉 집단은 집단의 의견 차이를 극소화할 집단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다.
- ④ 〈나〉 집단은 〈가〉 집단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 ⑤ 〈가〉와 〈나〉 집단은 모두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20.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치우치는
- ② ㉡ : 일어나는
- ③ ㉢ : 들어
- ④ ㉣ : 바뀐다
- ⑤ ㉥ : 늘어나는

(가)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
렵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차렵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
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
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
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
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
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홀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
을 두드려 만든 쇠불이 같으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땀뿔았던 뜨거움은 짜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불이와 쇠불이었다. 싸움터
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
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
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
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
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
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
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
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

㉠ 다.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럴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욕이 하나 생
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
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숙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
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
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
복이 펄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
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
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
다.

“아썬 절로 가시야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
하러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
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B]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
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
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
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
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
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
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
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차렵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윤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㉔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뵈었더냐?
 치 수 못 가 뵈었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 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뵈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 씨 산으로?
 치 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님이!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㉕어머님!

대문께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님.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21.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2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 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23.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㉔ ~ ㉕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㉔: 시나리오에는 차림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㉔: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㉔: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㉔: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㉔: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24. ㉔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 ② 후안무치(厚顔無恥)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4주차 - DAY 4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4 [30~33]

집진 기술이란 산업 현장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전기식 집진 방식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전자를 먼지나 유해 물질에 ㉠흡착하게 만든 후 이들을 집진판에 ㉡포집함으로써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오염 물질 제거 과정은 같지만 집진판을 ㉢세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 집진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되며 국내 발전소에 설치, 운전 중인 집진기는 거의 대부분이 건식 전기 집진기이다. 그런데 점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건식 전기 집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습식 전기 집진기를 최종적인 오염 제어 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본체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원통형 집진 장치를 예로 들면, 우선 본체의 ㉤하부에는 오염된 가스가 유입되는 통로가, 상부에는 오염 물질이 걸려져 깨끗해진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통 안의 중심부에는 끝이 뾰족한 방전침이 달린 방전봉이, 원통 내벽에는 오염된 입자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판이 설치되어 있다. 방전봉과 집진판에는 고압발생 장치에 의해 각각 (-)극과 (+)극이 연결되어 있다. 이밖에도 포집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집진판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습식 전기 집진기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압 발생 장치를 통해 방전봉에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방전봉의 끝 부분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 방전이란, 금속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상태인 기체가 높은 전압에 의해 그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침처럼 끝 부분이 뾰족한 어떤 물체에 높은 전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뾰족한 부분으로 (-)전하*가 몰리게 되고 정전기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의 기체 분자는 핵으로부터 전자(-)가 분리되어 기체의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후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은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들은, 방전봉과 집진판 사이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공기 중의 미세한 오염 물질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충돌에 의해 전자가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은 음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를 오염 물질의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는 (-)극의 방전봉과 (+)극의 집진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집진판에 포집된다. 그리고 세정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면서 오염 물질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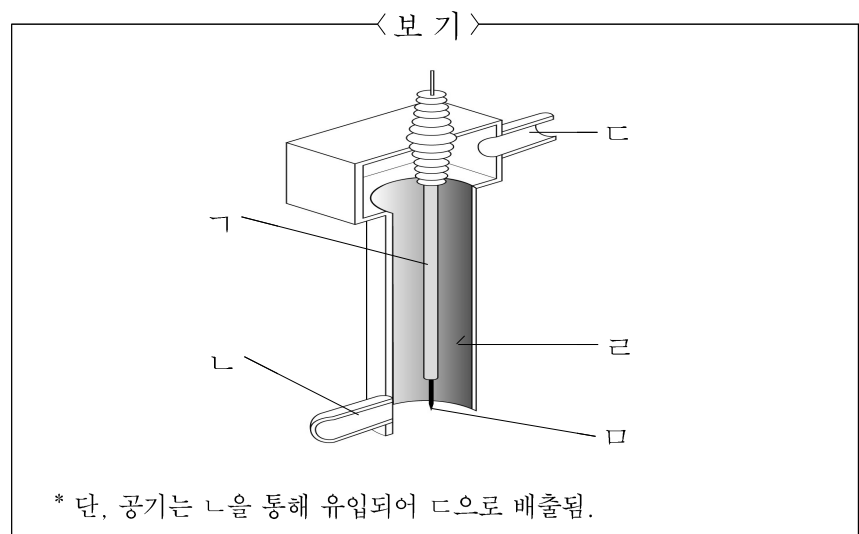
* 전하 :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 대전 : 물질이 (+) 또는 (-)의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

25.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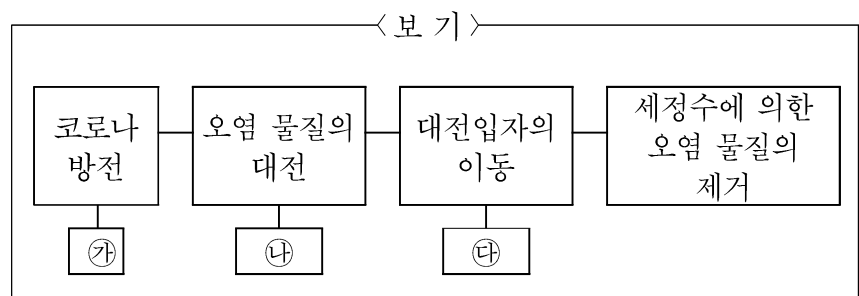
- ①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전압은 얼마인가?
- ② 집진 장치의 본체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건식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기를 세정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④ 방전봉과 집진판에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집진 장치의 내부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26. <보기>는 ㉠의 단면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극이, ㉢에는 (+)극이 흐르고 있다.
- ② 공기 속 오염 물질은 극성에 의해 ㉡으로 포집된다.
- ③ ㉤을 지나는 공기 속 오염 물질의 양은 ㉢보다 많다.
- ④ ㉢에는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세정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⑤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으로(-) 전하가 몰리게 된다.

27.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발생하기 전, 방전봉 주변의 기체는 절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군.
- ② ㉡와 ㉢사이의 과정에서는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던 전자들이 오염물질의 입자와 부딪히겠군.
- ③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지 못한 전자는 ㉣에서 방전봉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군.
- ④ ㉣의 대전입자는 방전봉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겠군.
- ⑤ ㉡~㉣의 과정은 건식과 습식 전기 집진기의 공통된 과정이겠군.

28.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스며들게
- ② ㉡ : 모음으로써
- ③ ㉢ : 깨끗하게 씻는
- ④ ㉣ : 아래쪽 부분에는
- ⑤ ㉤ : 밀어 내보내는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10B [43~45]

고운 섬들 좋은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숙한 기상을 나뭇에 뉘 벗할까.
옥난간 지나간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아이를 불러 시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 안에 가득 담고,
바느질을 끝낸 후에 안채에 밤이 들어
환한 촛불 아래 가깝게 다가앉아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 옥 같은 손 가운데 곱게곱게 개어 내
니
파사국(波斯國)* 임금의 산호 궁전을 헤쳐 놓은 듯,
궁궐 붉은 도마뱀을 절구에 뺨아 놓은 듯,
섬섬옥수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열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王母)*에
게 부치는 듯.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쪽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겠
는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한 여인이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창문을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위답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 작자미상, 「봉선화가」 -

* 파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 왕모(王母) :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의 선녀인 서왕모.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울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3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 ④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4주차 - DAY 5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2 (28~30)

엘리베이터 군(群)관리시스템은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동작을 적절히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상하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복수의 엘리베이터 중에 승객에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들어온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승객은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행선층의 버튼을 누른다. 이때 승객들의 선택이 다양할수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행선 예보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군관리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행선 예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승강장에 마련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미리 입력하게 한다. 그러면 승객들의 행선층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 각 층에 타고 내리는 승객 수 등을 계산하여 그 승객이 타야 할 엘리베이터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의 1층에 각 층을 가려는 승객 2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승객들이 자유롭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면 각 호기는 거의 매 층마다 정차하게 되어 승객들의 수송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행선층의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 행선층이 같은 승객끼리 묶어서 엘리베이터를 배정한다면 모든 승객이 거의 한 번 만에 행선층에 도착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엘리베이터에 같은 층을 가려는 사람들만 배정하면 승객의 수송 시간은 단축되지만, 대신 운행해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수가 많아져 전력 소비량은 늘어날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보다 최소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선 예보 방식은 승객의 수송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여 행선층이 비슷한 승객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배정하게 된다.

㉠행선 예보 방식의 시스템은 주군제어기, 보조군제어기, 호기제어기, 행선층 입력 장치, 원격 모니터 장치로 구성된다. 승객이 각 층에 설치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입력하면, 주군제어기는 입력된 호출에 대한 최적의 호기를 결정하고, 이를 다시 행선층 입력 장치에 전달한다. 그러면 행선층 입력 장치가 승객이 타야 할 호기를 표시한다. 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의 호출을 받아 이를 각 엘리베이터에 전달하여 엘리베이터가 호출된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며, 만약 주군제어기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주군제어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원격 모니터 장치는 주군제어기와 통신하며 주군제어기의 작동 정보를 분석하고 표시한다.

32. ㉠과 유사한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놀이동산에서 자유 이용권을 발매하여 다양한 놀이 기구를 제약 없이 즐기게 한다.
- ② 복잡한 지하철에서 출입문 양쪽으로 순서대로 줄서게 하여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한다.
- ③ 버스 정거장에서 도착할 버스의 정보를 미리 승객에게 제공하여 승객이 탈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게 한다.
- ④ 은행에서 대기표를 발급하고 고객의 순서가 되면 호출하여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게 한다.
- ⑤ 식당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주문을 받아 음식을 종류별로 조리하여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게 한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군제어기는 입력된 호출을 바탕으로 승객이 타야 할 호기를 결정한다.
- ② 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담당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면서 주군제어기의 명령을 수행한다.
- ③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번갈아 가며 작동하며 주군제어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 ④ 원격 모니터 장치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주군제어기의 작동 정보를 분석한다.
- ⑤ 행선층 입력 장치는 행선층의 정보를 전달하는 입력 기능과 결정된 호기를 표시하는 출력 기능을 담당한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행선 예보 방식으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1호기, 2호기는 현재 지하 1층에 대기하고 있고, 이 중 1호기에는 3층에 가려는 승객이 이미 탑승해 있다. 1층에서 승객 A와 B가 각각 3층과 5층으로 가기 위해 행선층 입력 장치에 호출을 한 상태이다.
(단, 전력 소비량은 두 호기의 이동 거리를 더한 것에 비례함.)

- ①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②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A는 2호기에, B는 1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③ 승객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1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④ 승객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A는 1호기에, B는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⑤ 승객 수송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함께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붙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백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떨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 쓰고 린네즈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州)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뻘**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깃 보기에, 한 사나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효양: 아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 부종: 몸이 붓는 증상.

* 전경부: 목의 앞쪽 부분.

* 팽릉: 크게 부어 오름.

* 바세도우씨병: 갑상선의 이상으로 갑상선이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병.

* 광무소: 광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사무소.

3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상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변화를 박진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보와 대비되는 경제력을 소유한 것을 통해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금광에 도전하여 성공한 모습을 통해 진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구보를 비판하는 언행을 통해 지식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허위 의식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병폐가 생겨났고 황금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에는 이런 병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주인공은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군.
- ② 주인공은 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적 신뢰가 약화된 도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는군.
- ③ 주인공은 ‘양복 입은 사나이’가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끼는군.
- ④ ‘두 명의 사나이’를 보면서 주인공은 무직자가 양산되었던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이러한 문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군.

빠른 정답 - 4주차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③	15	②	29	③
2	⑤	16	③	30	④
3	④	17	③	31	④
4	②	18	③	32	⑤
5	①	19	①	33	③
6	②	20	⑤	34	④
7	③	21	②	35	①
8	①	22	②	36	③
9	④	23	④	37	⑤
10	③	24	⑤		
11	⑤	25	④		
12	⑤	26	②		
13	②	27	③		
14	④	28	①		

정답과 해설 - 4주차

DAY1

[1~4]

기존의 분자 생물학은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개별적인 기능을 알아내는 환원주의적 방식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유기체는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접근만으로 생명 현상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다.

기존의 분자 생물학은 ‘환원주의적 방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이 개념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어야겠죠?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애는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스템 생물학은 생물 현상의 전모를 어떻게 이해하게 해줄까요?? 문제해결이라는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환원주의적 방식’으로는 생명 현상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what이 있고, 그 why는 ‘유기체의 상호 작용’이 되겠죠. 이 문제점의 해결책인 how가 ‘시스템 생물학’이므로 분명히 시스템 생물학은 why인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소개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읽어가 봅시다. 시스템 생물학은 상호 작용을 어떻게 고려했을까요?

시스템 생물학은 최근 들어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 대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스템 생물학자들은 축적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생명 현상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들 간에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포괄하는 시스템 내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생명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명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스템 생물학은 뭐 저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시스템 생물학자들이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는 말을 보자마자 저처럼 밑줄을 쳐야겠죠? why를 해결한다는 부분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방법, 즉 how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겠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유기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까요?

가상 심장을 최초로 개발한 데니스 노블은 이러한 방법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현상 속에 작동하는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를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심장의 박동은 세포 내의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 그것이 심장의 근육 세포에 전압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발생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데니스 노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상 심장을 개발했고,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해요. 사람이 나왔으니 그 사람의 주장을 체크하는 게 기본이겠죠? 이 사람은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며 읽어 가는데, 갑자기 ‘지금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블 이전까지는 심장 박동을 저런 식으로 설명했대요. 그럼 노블은 저 의견을 뒤집는 식으로 주장을 할텐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노블은 심장 박동이 이러한 단일의 인과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채널이라는 구성 요소와 그것의 상부 구조라 할 수 있는 근육 세포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살아 있는 심장을 컴퓨터로 모델화한 후,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둔 채 피드백 효과와 관련된 것만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의 전압 변화와 단백질 채널인 칼륨 채널, 칼슘 채널, 그리고 혼합 이온 채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역시나 노블은 저런 입장을 까면서, ‘상호 작용’에 의해 심장 박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상호 작용이라는 말에서 빛이 나와해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 부분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핵심은 저 실험이 상호 작용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파악하는 거니까요!

①먼저 처음 1초 동안에는 세포 전압의 진동과 이에 대응되는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네 차례 있었다. ②네 차례의 진동 후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다.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③하지만 실험해 본 결과 단백질 채널의 진동이 멈추었고, 각 경우의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선(線)들이 편평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 심장의 박동이 설명될 수 없으며, 심장의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심장의 박동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뭔가 실험 내용이 복잡하고 정보량도 많다고 느껴져서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니.. 과정이네요! 그럼 늘 하던대로 번호를 매겨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저 과정은 결국 노블의 실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 즉 상호 작용이 심장 박동에서 필수적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겠네요. 오 막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노블이 환원주의가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정도는 알겠네요. 딱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실험은 생명 현상이 유전자나 단백질에서부터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로 향하는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와 반대되는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도 생명 현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노블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환원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 내의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실험은 ‘아래 방향의 인과’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걸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읽으시면 베리베리굿) 환원주의를 까는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문제해결 구조를 잡고 과정을 가볍게 처리하며 읽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1. ③

① 시스템 생물학은 기존의 생물학이 가지고 있던 환원주의적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의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② 기존 분자 생물학은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③ 연구 성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구했다.’ 정도만 있지, ‘이런 업적을 남겼다!’ 같은 건 없습니다.

④ 실험 과정 나왔고, 그것을 체크하며 읽었겠죠?

⑤ 마지막 문단에서 노블의 주장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주장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 ⑤

- 노블의 실험결과를 묻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5문단에서 정리해둔 과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푸셔야 합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① 선들이 편명해진 것은 피드백을 정지시키는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② 처음 1초 동안에는 아무런 조작이 없으므로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③ 1번 선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④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과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⑤ 편명해진 선은 기존의 ‘단백질 채널의 작동만으로 심장이 박동한다.’라는 생각과 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 지문의 흐름 자체가 기존 생물학의 문제점을 시스템 생물학이 해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생물학이 기존 생물학을 옹호한다는 식의 선지는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있네요.

3. ④

- ㉠은 실험 결과가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밑줄 문제가 나오면 그 밑줄 근처를 보며 핵심을 잡아두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심장의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심장 박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래 방향으로 인과 관

계’라고 했구요. 이와 관련된 것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의 근육 세포 -> 단백질 채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 ②

- 마지막 문단에서 노블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환원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주구장창 유전자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은 당연히 2번이겠네요.

5. ①

- 지문 전체적으로 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나’의 심리 상태를 독백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6. ②

① ‘깨어진 것’을 통해 억압과 폭력적 속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기다림의 순간’에 ‘나’는 행인이 자기한테 말을 걸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③ 그들과 일하는 기회를 잡고 싶다는 욕망을 위해 주체적으로 길을 나선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금지 구역’을 통해 ‘결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나’가 준비하던 책자들이 ‘안’이 준비하던 것이라는 걸 토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7. ③

① ‘열쇠’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소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잠근다=인쇄소의 일(책 쓰기)을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② 여러분들이 민주화 운동하는데 집 앞에 양복 입은 남자 두명이 담배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된 분위기 강화되겠죠?

③ ‘나’는 분명히 걱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어요.

④ ‘병이 없는 신열’이라는 단어에서 ‘힘들게 견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현책방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죠.

DAY2

[8~11]

실제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콜라주* 기법이나 설치 미술 또는 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말한다. 이는 198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 하나의 사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화제는 ‘메이킹 포토그래피’일 것이고, 애는 ‘기존의 사진’과는 차이점을 가지네요. 기존의 사진과의 차이점, 그리고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정의는 자연스레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애는 그리고 1980년대라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해요. 혹시나 시간순 서술일 수도 있으니 일단 시대 체크해두고, 메이킹 포토그래피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봅시다.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품을 만든 작가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다. <그의 작품 <페어블라شم 고속도로>는 많은 사진들로 구성된 콜라주 작품이지만 그 구성이 자연스러워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 어떤 장면을 한 시점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어나가면서 고속도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상자들의 시선은 전체의 모습을 보다가도 다시 각각의 사진을 들여다보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진들은 시점은 물론 이거니와 크기나 방향마저 제각각인데다가 중첩되어 있어 시선의 이동을 불편하게 한다.> 호크니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혼란이었다.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대표적인 작가로 호크니가 나옵니다. 호크니의 작품에 대한 설명은 굳이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며 대충 읽고, 호크니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각적 혼란’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왜 이런 시각적 혼란을 의도했지? 정도가 궁금하면 좋겠구요. 만약 이게 중요하다면 뒤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카메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안된 원근법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언제나 원근법 체계로 구성된 세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서만 대상을 한 시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호크니는 대상을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진’으로 분해하여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의 평면인 사진으로 3차원의 공간감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카메라는 저런 정의, 그리고 대상을 한 시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호크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진으로 분해,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시각적 혼란’에 해당하나봐요. 그렇구나~ 하고 계속 읽어 봅시다.

또한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를 주도한 작가 중 한 명은 샌디스코 글렌드이다. 그녀의 작품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①먼저 콘티*를 짜고 무대를 설치한 후, 무대에 배치될 소품들과 형상들을 조각한다. ②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에 색을 칠하고 다시 정교하게 배치한 다음, ③사람을 무대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일종의 가상적 무대를 설정하고, 물질문명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 환경 파괴에 의해 닥쳐올 공포에 대한 암시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1980년대의 메이킹 포토그래피를 주도한 또 다른 작가는 샌디스코 글렌드라고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크하고, ‘주장’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뭐 저런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대요. 좀 호크니와 비교도 하고 공통점 / 차이점도 나오고 하면 좋을 텐데 아쉬운 지문이네요...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진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뭐 저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좋은 것이여~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네요.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8. ①

-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유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만들어진 이라는 뜻의 영어단어와 사진이라는 뜻의 영어단어가 합쳐져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맞겠지만 나오지 않죠.

9. ④

① 둘 다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품이니 대상을 재구성했겠죠.

②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③ 둘 다 메이킹 포토그래피이니 그 특징인 평면의 한계 극복은 맞는 선지네요.

④ <보기> 작품에 동일한 형태의 연속적 반복은 전혀 없죠? <보기> 설명에서도 그런 말은 없구요.

⑤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하나의 대상같다고 언급했으나, <보기>의 작품은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10. ③

- 너무 쉽네요. 지문에서는 계속 사진을 가지고 대상을 가공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보기>는 사진은 사실적 이어야해!! 라고 빼액거리네요. 그럼 답은 뭐 쉽게 3번이죠.

11. ⑤

12. ⑤

- 이런 (가)(나)(다)형 문학 문제에서 (가)에 대한 단독 문제가 있으면 (가)를 읽고 바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다)를 읽으며 기억이 회발되기 전예요.

① 지문에

② 나와

③ 있네요.

④ 이걸 둘의 공통점을 묻는 선지네요.

⑤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전개되는건 '월령체가'입니다. 월령체가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네요.

13. ②

① (다)에서는 아이들을 부르고 있지만, (나)에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② 두 지문 모두 설의법 천지입니다. 설의법도 영탄적 표현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③ 상승 이미지는 그렇다치고, 화자의 의지는 도저히 허용하기 힘드네요.

④ 애초에 사시가는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시예요. 점층적 표현이 나오기 힘들죠.

⑤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지 않네요.

14. ④

① <1수>에서는 '봄'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뒤론 '녹음', '벼', '눈' 등을 통해 계절을 짐작하게 하고 있네요. '녹음'이 여름을 의미한다는 건 알아둡시다.

② (나)는 봄,여름,가을,겨울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에서 이렇게 초기의 단순한 패턴이라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녹음'을 통해 여름을, '낮닭'을 통해 낮이라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춘2>와 <동1>에는 각각 '봄,밤', '북풍,석양'은 제시되고 있지만 하루의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되지는 않네요.

⑤ 새해가 왔다는 건 순환하는 또 다른 1년이 왔다는 소리이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15. ②

① 고기마다 살찌 있다는 건 자연이 풍족하고 참 좋은 곳이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니, 사대부층의 만족감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역군은'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몰랐다면 외워둡시다. 임금의 은혜를 찾는데 속세와 단절되었다는 건 말도 안 되겠어요.

③ 그물을 잡고, 산의 밭들을 매는 행위는 노동의 삶 맞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긴 조름을 킨다고 했습니다. 여유롭죠. 저도 자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⑤ 술 먹고 노는거면 흥취를 느낀다고 할 수 있겠죠.

16. ③

- 화자들은 늙은이와 아이들이 각각 '재미가 깊다', '즐거 마라'라고 말하며 그들이 현재 상황을 즐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답은 쉽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AY3

[17~20]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집단의 최초 의견이 모험적인 경우는 더 모험적인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향이었다면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결정되는 극단화되는 현상을 ‘집단극화’라 한다. 그렇다면 집단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단극화’라는 개념의 정의를 관련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사례도 정의도 어렵지 않으니 딱 잡고 가고, 이 집단극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화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읽어 봅시다.

첫째, ‘**사회비교 이론**’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의 중에 자기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관람한 영화가 보통 정도는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도 ‘정말 형편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자신도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친구들보다 더 강화된 근거로 제시하여 집단으로부터 지지받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단의 의견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집단극화가 발생하는 원인 중 첫 번째로 ‘사회비교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줍니다. 뭐 정의도 예시도 어렵지 않네요. 손쉽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집단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화제예요!

둘째, ‘**설득주장 이론**’은 집단 토의가 진행되면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접하게 되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에 구성원들이 솔깃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 의견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그럴듯한 주장이 제시되면 극단의 의견이 더 설득적이라 생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이 양극의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애도 뭐.. 어렵지 않네요. 우리가 평소에 겪는 일과 비슷해서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셋째,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극화를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사회 정체성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내집단에서 생긴 의견 차이는 극소화되고, 집단의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다.> 즉, 내집단 구성원 간의 의견차는 극소화되는 반면 외집단과 내집단의 차이는 극대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내집단의 의견은 다른 집단의 의견과 차별화되고 외집단과는 다른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치적 경향이 달랐던 두 정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합하지 못하고 견해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이

러한 예에 해당한다.

애는 그나마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팀 의견은 더 동조하고, 다른팀 의견은 더 거부감이 들고! 이게 바로 사회 정체성 이론이네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론들이 모두 집단극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집단극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대안의 고려나 다양한 사고 없이 집단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집단 사고’라 한다. 이러한 집단 사고의 부정적 경향성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 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이나 비판이 배제된 집단, 지나치게 권위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집단,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없는 집단,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의 경우에 강화된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집단극화 현상으로 내리게 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집단 사고’라고 한답니다! 이 정의는 딱 체크해두고, 집단 사고의 부정적 경향성이 나타나는 저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리하면 되겠네요. 매우 쉬운 지문이에요.

17. ③

① 집단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극단화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집단극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의 화제였으니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② ‘사회비교 이론’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③ 사회 정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단.

④ ‘설득주장 이론’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8. ③

- 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편 가르기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테니스 동호회 - 동호회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이죠.
- ② 회의가 진행될수록 소수의 의견은 묻히고 다수의 의견 쪽으로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 ③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득된 적 없습니다. 그냥 갈등을 빚고 있을 뿐이죠.
- ④ 회의가 진행되며 사용 시간의 변경 같은 다른 제안의 정보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도 얻다보면 다수의 극단적인 의견으로 우세해지겠죠.
- 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9. ①

- ① <가>집단은 회의 후 반대의수가 압도적으로 주는 집단 극화를 보였습니다. [A]에 의하면 이들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이 부재할 수도 있네요.
- ② <가>집단은 의견이 너무 일치되어서 문제입니다.
- ③ <가>집단은 의견 차이가 너무 극소화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 ④ <나>집단은 그래도 찬성 반대가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네요. 외부의 비판적 의견도 잘 수렴하고 있는 듯 합니다.
- ⑤ 권위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20. ⑤

21. ②

- 작품 밖 서술자가 치수의 내면을 계속해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시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22. ②

- ①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늙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니, 힘이 가늘어졌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싼’ 것은 치수가 아니라 윤씨 부인입니다. 꼼꼼하게 읽읍시다.
- ③ ‘보이지 않는 강물’을 토대로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기억 속의 어머니는 자애스러웠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차갑게 대했으니 충격이 컸겠죠.
- ⑤ 남보다 멀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니,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23. ④

- ① 원작에는 ‘갈매빛’이 나타나있고, 시나리오에는 색깔이 나오지 않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시나리오에는 그냥 ‘소리’라고 되어있으니 원작에 나오는 삼월의 목소리를 넣어야겠네요.
- ③ 원작에서 윤씨 부인의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④ 원작에서 치수는 이 대사를 한 뒤에도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허용하기 힘드네요.
- ⑤ 어린 치수는 윤씨 부인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매우 반가웠을테니 다급한 어투로 말해야 겠네요.

24. ⑤

DAY4

[25~28]

집진 기술이란 산업 현장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전기식 집진 방식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전자를 먼지나 유해 물질에 흡착하게 만든 후 이들을 집진판에 포집함으로써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집진 기술이라는 개념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식 집진 방식이라는 개념도 나오네요. 그냥 개념의 정의로 시작했으니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앞으로 나오겠죠. 기대하면서 읽어 봅시다.

또한 오염 물질 제거 과정은 값지만 집진판을 세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 집진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되며 국내 발전소에 설치, 운전 중인 집진기는 거의 대부분이 건식 전기 집진기이다. 그런데 점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건식 전기 집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습식 전기 집진기를 최종적인 오염 제어 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전기 집진기는 ‘집진판을 세정하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에 따라 또 건식 / 습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건식을 쓴대요! 그런데 환경 규제 때문에 습식을 최종 오염 제어 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또 최근의 추세라고 하네요. 쉽네요. 그냥 전기 집진기가 머릿속에서 두 개로 딱 나누어지고 각 방식의 특징이 밑에 써지면 됩니다.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본체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원통형 집진 장치를 예로 들면, 우선 본체의 하부에는 오염된 가스가 유입되는 통로가, 상부에는 오염 물질이 걸러져 깨끗해진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통안의 중심부에는 끝이 뾰족한 방전침이 달린 방전봉이, 원통 내벽에는 오염된 입자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판이 설치되어 있다. 방전봉과 집진판에는 고압발생 장치에 의해 각각 (-)극과 (+)극이 연결되어 있다. 이밖에도 포집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집진판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습식 전기 집진 방식 중 ‘원통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 사고방식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해당 문단을 정말 대충 읽으셨을 겁니다. 왜? 어차피 이해하거나 암기하기도 힘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습식의 구조라는 것만 파악하고, 제가 한 것처럼 구성 요소 몇 개에 동그라미만 쳐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습식 전기 집진기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먼저 고압 발생 장치를 통해 방전봉에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②방전봉의 끝 부분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 방전이란, 금속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상태인 기체가 높은 전압에 의해 그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침처럼 끝 부분이 뾰족한 어떤 물체에 높은 전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뾰족한 부분으로 (-)

전하*가 물리게 되고 정전기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④이 때문에 그 주변의 기체 분자는 핵으로부터 전자(-)가 분리되어 기체의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것이다. ⑤이후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은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⑥이 전자들은, 방전봉과 집진판 사이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공기 중의 미세한 오염 물질들과 부딪치게 된다. ⑦이러한 충돌에 의해 전자가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은 음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를 **오염 물질의 대전***이라고 한다. ⑧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는 (-)극의 방전봉과 (+)극의 집진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집진판에 포집된다. ⑨그리고 세정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면서 오염 물질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네 제가 뭐라고 할지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거 이해못합니다. 그냥 습식 전기 집진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하고 번호 매기면서 과정을 끊어두는 겁니다. 대충 읽으면서 매커니즘만 살짝 파악하시고, 코로나 방전, 오염 물질의 대전 같은 개념의 정의까지 잡아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해둔 상태로 문제를 풀러 가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돌아오면 돼요!

25. ④

- 방전봉과 집진판에 각각 (-)극과 (+)극이라는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전된 오염물질을 집진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집진판에 포집시키기 위해서네요. 지문의 화제인 ‘습식 전기 집진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물음이네요. 과정을 체크하면서 이걸 기억해내면 베스트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정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했어도 되겠네요!

26. ②

<보기> : 3문단에 나온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구조를 천천히 따라가면 ㄱ은 방전봉, ㄴ은 가스 유입 통로, ㄷ은 가스 배출 통로, ㄹ은 집진판, ㅁ은 방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잡고 돌아갈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① 방전봉에는 음극이, 집진판에는 양극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② 집진판의 정의가 ‘오염 물질을 포집하는 곳’입니다. 방전봉이 아니라 집진판에 모이겠네요.

③ ㄴ은 오염된 가스가 유입되는 곳이고, ㄷ은 배출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ㄴ에 오염 물질이 더 많겠죠.

④ 집진판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⑤ 습식 전기 집진기가 작동하는 과정을 체크하면 뾰족한 부분, 즉 방전침으로 음전하가 몰린다고 했습니다.

27. ③

- 이번 주는 과정서술형 지문이 많네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① 코로나 방전의 정의가 ‘절연 상태의 기체를 조지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기 전엔 당연히 기체가 절연 상태겠죠.

② 과정을 체크하다 보면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이 미세한 오염 물질들과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③ 일단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이 음전하를 띄고, 양전하 쪽인 집진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흡착되지 못하더라도 음전하인 것은 변함이 없을테고, 같은 음극인 방전봉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④ 대전입자는 음전하를 띄므로, 음극인 방전봉과 멀어지려 하겠죠.

⑤ 2문단에서 건식과 습식의 차이점은 ‘세정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에 유의하며 읽었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28. ①

- ‘흡착’은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스며드는 것과는 달라요.

29. ③

- 이 지문은 봄철 봉선화를 보며 바느질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풀을 매고, 돌아와 눕는 일련의 과정들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충 읽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어떤지 집요하게 체크하면서 읽어주세요.

30. ④

① 백반을 갈고, 손에 바르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한 듯’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봉선화 물이 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선녀에게 보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했다는 뜻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눈썹에 바른 봉선화 물이 가지에 붙어 있는 꽃처럼 이쁘다는 뜻으로, ‘어지러운’만 보고 ‘속성을 파악하기 힘들’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지럽게 흩어질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런 구절을 쉽게 이해하려면 고전시가를 읽어보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⑤ ‘~하다는 말’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31. ④

① ‘향기 없다’고 웃지말라고 한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의홍상 한 여인’을 본 뒤 밖에 나가보니 꽃들이 다 떨어졌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 비문학처럼 구절들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역시 두 구절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생각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머물렀으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마 ㅏㅏ’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④ ‘무상감’이라는 반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⑤ 인연이 그대 하나 뿐이면 당연히 각별한 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DAY5

[32~34]

엘리베이터 군(群)관리시스템은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동작을 적절히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상하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①복수의 엘리베이터 중에 승객에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들어온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②승객은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행선층의 버튼을 누른다. 이때 승객들의 선택이 다양할수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행선 예보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군 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작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가볍게 과정 체크해주고, 이런 일상적 엘리베이터가 가진 ‘문제점’을 체크해봅시다. 승객들의 선택이 다양할수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그 문제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렇죠 행선 예보 방식! 그럼 행선 예보 방식은 이런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why가 야기한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 즉 what을 어떻게 해결해줄까요? 기대하면서 가 봅시다.

엘리베이터 군관리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행선 예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승강장에 마련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미리 입력하게 한다. 그러면 승객들의 행선층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 각 층에 타고 내리는 승객 수 등을 계산하여 그 승객이 타야 할 엘리베이터가 배정된다.

행선 예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이걸 과정으로 봐도 되고, 그냥 저처럼 다 정의로 보고 밀줄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정의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의 1층에 각 층을 가려는 승객 2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승객들이 자유롭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면 각 호기는 거의 매 층마다 정차하게 되어 승객들의 수송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행선층의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 행선층이 같은 승객끼리 묶어서 엘리베이터를 배정한다면 모든 승객이 거의 한 번 만에 행선층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출제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 예시는 행선 예보 방식이라는 화제를 이해하달라는 외침입니다. 대충만 해도 되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때 하나의 엘리베이터에 같은 층을 가려는 사람들만 배정하면 승객의 수송 시간은 단축되지만, 대신 운행해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수가 많아져 전력 소비량은 늘어날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보다

최소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선 예보 방식은 승객의 수송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여 행선층이 비슷한 승객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문제도 생기는데, 행선 예보 방식은 이런 문제도 저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전반적인 운행 방식을 이해하며 읽어 주시면 돼요! 아예 이해 못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구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지문의 텍스트 이상으로 묻지 않을 테니까요.

행선 예보 방식의 시스템은 주군제어기, 보조군제어기, 호기제어기, 행선층 입력 장치, 원격 모니터 장치로 구성된다. ①승객이 각 층에 설치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입력하면, ②주군제어기는 입력된 호출에 대한 최적의 호기를 결정하고, ③이를 다시 행선층 입력 장치에 전달한다. ④그러면 행선층 입력 장치가 승객이 타야 할 호기를 표시한다. ⑤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의 호출을 받아 이를 각 엘리베이터에 전달하여 엘리베이터가 호출된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며, 만약 주군제어기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주군제어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원격 모니터 장치는 주군제어기와 통신하며 주군제어기의 작동 정보를 분석하고 표시한다.

행선 예보 방식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그 시스템들의 역할을 과정을 서술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연습했으니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각 시스템들의 정의,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과정 속에서 하는 역할들을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2. ⑤

- ⑤의 정의를 따져봅시다. ‘승객이 엘베를 타기 전에 승강장에 마련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미리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놈의 장점은 ‘수송 시간 단축’이었구요. 종합하면, ‘미리 신청받고 시간 줄이기’가 핵심이네요. 이걸 모두 포함하는 건 5번 선지 밖에 없습니다.

33. ③

① 주군제어기의 정의입니다.

② 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의 명령(호출)을 각 엘베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③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이 고장났을 때 대체하는 것이지, 번갈아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예요.

④ 원격 모니터 장치의 정의입니다.

⑤ 행선층 입력 장치는 승객이 원하는 층을 입력하는 과정과 이를 표시하는 출력 과정 모두 관여한다고 했네요.

34. ④

①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한 대의 엘베만 운영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1호기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 2호기가 아니라 1호기에 몰아야겠죠.

②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네요.

③ 승객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3층으로 가려는 A는 1호기에 (이미 3층 가려는 사람이 타고 있으니) 5층 가려는 B는 2호기에 타게 해야겠네요. 그럼 둘 다 한 번에 내릴 수 있으니까요.

④ 3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네요.

⑤ 모두 고려하면 '행선충이 비슷한 승객'끼리 같은 엘베에 타도록 한다는데, 1호기에 모두 태울수도 있고, A는 1호기에, B는 2호기에 태울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의 정확한 의미가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A와 B가 둘 다 2호기에 타면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럼 엘베도 두 대 써야하고 2호기는 두 번 내려줘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니까요.

35. ①

①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와 같은 추측 표현을 통해 상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짧은 문장, 박진감.. 모두 허용하기 힘들죠? 참고로 평가원에서 말하는 '짧은 문장'이라 함은 대충 지문에서 한 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딱봐도 짧은 문장이어야 해요!

③ 과거의 경험, 시간이라는 포인트는 나왔다면 당연히 체크했겠죠?

④ 심리적 갈등은 나온 적도 없어요.

⑤ 이 지문은 3인칭 시점이에요. 서술자의 경험이 아닌 주인공 '구보'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6. ③

①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온 적이 없어요.

② 진취적인 태도도 나온 적이 없네요.

③ 열등생이던 예전의 모습에서 금시계를 차고 연애를 하는 모습이 되었고, '전당포 집 아들'이라 돈이 많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오바한 선지긴 합니다. 틀렸어도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④ 지식인의 경제적 무능력, 허위의식은 나온 적이 없어요.

⑤ 전당포 집 아들인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건 아니죠.

37. ⑤

① '고독을 느낀다.'는 인물의 심리를 체크했다면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사람들'은 서로 말도 걸지 않고 믿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③ '양복 입은 사나이'는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구보는 그 때문에 '우울'해졌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역시 인물의 심리가 중요했어요.

④ '두 명의 사나이'를 무직자라고 확신하면서 '황금광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현실에서 벗어나다? <보기>에서 물질적 가치 싫다면서요.. 참 웃기는 선지네요. 구보도 물질적인 가치를 싫어했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구요.